

영화 · 음악 어우러진 감정 산책

전주 문화공간이름서 '영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3' 8월 5일~9월 16일 매주 화요일 개최

전주의 대표 감상 공연 '영화따라 클래식 산책'이 올해 여름, 세 번째 시즌으로 관객과 다시 만난다.

오는 8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전주 문화공간이름서에서 열리는 '영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3'는 '예술이 품은 감정'을 주제로 영화와 클래식 음악, 그리고 깊이 있는 해설을 통해 관객을 감정의 여정으로 초대한다.

총 7회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시즌은 매 회차마다 서로 다른 영화와 감정, 그리고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밀레와 모네의 빛과 시간, 사갈과 피카소의 사랑과 불안, 바스키아와 데미안 허스트의 자유와 혼란, 그리고 고흐·클림트·에곤 실레 등의 작품 속 감정을 음악으로 풀어낸다.

고정된 영화가 연주자의 해석을 통해 다시 호흡하고, 관객의 공감을 통해 새로운 감정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이번 시즌에는 전시기획자이자 미술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정우철 도슨트가 특별초청으로 합류해 공연의 깊이를 더한다.

그가 해설을 맡는 회차에는 피아니스트 박상욱, 첼리스트 박건우가 함께 출연, 시각과 청각이 교차하는 감상 서사를 완성한다. 이 외에도 최지영 도슨트를 비롯해 피아니스트 이운정, 이영신, 오은하, 박찬근, 김도연, 바이올리니스트 임영주, 첼리스트 김나래·김성민, 클라리넷 유지연, 보컬 김찬미, 바리톤 석상근,



영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3 포스터

베이스 이대혁 등 수준 높은 연주자들이 함께해 감정의 깊이를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특히 이번 시즌3는 각 회차마다 완전히 다른 감정선과 음악적 구성이 돋보인다. 쇼팽의 '빛방울 전주곡'으로 카유보트의 빛속 풍경을 그려내고, 실베스트로프의 바가텔을 통해 고흐의 밤하늘을 음악으로 묘사하는 등, 예술가의 삶과 감정에 깊이 닿는 시도가 이어진다.

관객 경험을 한층 고급화하기 위한 시도도 주목된다. 공연장 무대 가까이 배치된 '프리미엄 빈백석'이 처음 도입되어, 안락한 좌석에서 음료와 다과를 함께 즐기며 예술에 몰입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단 10석 한정 운영되는 이 좌석은 지역 문화 예술을 아끼는 영창철강 이현중 대표의 후원으로 마련돼,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취지를 더욱 빛나게 한다.

이운정 문화공간이름 대표는 "영화따라 클래식 산책은 예술이 감상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감정을 나누고 치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한 기획"이라며, "이번 시즌3는 감정을 음악으로 그려내는 진정한 '감정의 클래식 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따라 클래식 산책'은 예술작품을 통해 감정을 공유하는 새로운 공연 형식으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아왔으며, 문화공간이름이 지향하는 '경험 중심 예술 공간'으로서의 철학을 실현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는 '2025 소공연장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된다.

예매는 네이버에서 '영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3'를 검색하면 가능하며, 회차별 프로그램 및 출연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문화공간이름 블로그 또는 전화(063-223-532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1부 '강패와 장구' (2)

'누구를 말이요?'

- 오상근 -

'죽여주면 10억을 주겠소.'
온 신경이 미간으로 송곳 끝이 되어 물렸다. 역시 음성은 진지했다. 10억이라니. 10억이 뉘 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누구를 말이요?"
동식은 상대가 던진 낚시에 입질을 하고 있었다. 이 자의 의중을 알려면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할 것 같다.

'서울에 사는 강용대라는 자요.'
"그 사람이 누구요?"

"....."
"누구인데 죽여 달라는 거요? 사람 죽이는 일이 쉬운 일이지?"

'승낙을 하면 강용대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겠소.'

좀처럼 패를 보여주지 않는다. 건달 체면이 있지 쉽게 낚시 바늘을 물 동식이 아니다.

"하하하하....., 지금 장난하는 거요? 내가 누구인줄 알고....."

상대는 잠시 말이 없다. 그렇다고 동식은 바로 전화를 끊진 않았다.

'나는 박정수요. 강동식을 상대로 장난을 치는 사람도 있소? 다시한번 말하지, 서울에 사는 강용대를 죽여주면 10억을 주겠소. 잘 생각해보고 답을 주시오.'

특, 상대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정거장을 많이 남겨놓고 차에서 내린 기분이다. 준 것도 없이 손해를 본 기분이다. 차 안인데도 찬바람이 등짝을 쑥 훑고 지나갔다. 기분이 몹시 더러웠다.

허! 이거 대체 뭐야?
잠시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조수석에 던져버리고 주머니에서 말보로를 꺼냈다. 한

개비 꺼내 물고 불을 붙여 한 모금 깊이 뺏 뒤 천천히 연기를 빨아냈다.

감방에 있는 동안 이 말보로가 얼마나 그리웠던가.

깊고 풍부하면서 구수한 맛. 삼남자라면 모름지기 말보로 정도는 태워야 한다.

징역에서 파우던 이주식게 꺾기의 담배와는 맛과 풍미가 다르다. 한 개비 담배를 열 등분한 이주식게 담배는 피우고 나면 영성이 차지 않았다. 입맛만 배렸다고 할까. 담장 밖 세상이 이래서 좋다.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말보로 담배가 있고 온몸을 노곤하게 지질 수 있는 온천이 있지 않는가.

"서울에 사는 강용대를 죽여주면..... 10억을 주겠다....."

동식은 담배연기를 뿜어내며 혼잣말로 되뇌었다. 감당하기 버거운 고깃덩어리를 받아든 기분이다. 던져진 고깃덩어리를 담석 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건달의 징역살이가 그렇듯 동식은 7년을 에누리 없이 '반평'으로 채우고 담장 밖으로 나왔다. 동식 정도의 건달 캐리어면 형편없이 징역을 살지는 않는다. 호텔 게스트 처럼 접대를 받으며 살 수는 없지만 나름 여러 사람들에게 대우 아닌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다.

하지만, 당분간은 아니, 앞으로는 더 들어가고 싶지 않다. 아무리 대우 받는 징역살이라 한들 바깥세상만 할까. 사람을 죽이면 죽히 10년 이상을 세상과 격리되어야 한다. 나이 오십이 넘어서 나올 수도 있다. 거절해야 하나?

▶▶ 작가 오상근 프로필 ◀◀

- 2012년 단편소설 〈여명〉 국무총리상 수상
- 2015년 단편소설 〈그섬에 가면〉 전북도민일보 신춘문예 당선
- 2016년 단편소설 〈문어〉 여수해양문학상 대상 수상
- 2016년 단편소설 〈술사탕아포가토〉 한국소설가협회 신예작가 선정
- 장편소설 〈각성당의 비극〉 〈유령선 살인사건〉 〈폐광〉 〈정군암살사건〉 출간
- 문예지 〈현대소설〉 등에 단편소설 수회 발표



영 · 호남 여성 고용정책 협력의 장

전북광역여성새일센터, 여성일자리창출 교류회 열려

'2025년 영 · 호남 여성일자리창출 교류회'가 지난 17~18일 이틀간 신라스테이전주에서 열렸다.

전북광역여성새일하기센터에 따르면 이번 교류회는 여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간 협력과 정책 연계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2025년 영 · 호남 여성일자리창출 교류회'가 지난 17~18일 이틀간 신라스테이전주에서 열렸다.

여성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의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광역단위 여성고용정책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경력단절 예방 및 재진입 지원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여성 고용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역 간 정책 격차를 해소하며,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현하고자 했다.

핵심 세션으로는 여성가족부의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실증 기반 경력단절예방 모델 고도화 △광역·지역 간 역할 재정립 및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등이 있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전정희 원장은 "이번 교류회는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경력단절 예방이라는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광역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실행력 있는 여성고용 정책모델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나 전화(063-254-3712)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